

-Date: 23 Tammuz 5786 (July 8, 2026)

Torah Portion: Mattot/Massei

Topic: 여호와 엘로힘의 길, 제 2 부

스포르노(Sforno)는 도피성을 감옥이 아니라 감화와 재활의 장소로 바라봅니다. 비극이 일어났던 환경에서 벗어남으로써, 살인자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 자신의 내면세계를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클리 야카르(Kli Yakar) 역시 이와 비슷하게, 사고란 종종 내면에 숨겨진 영적 부주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관찰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사고로 보일지라도, 야훼(YHWH)만이 온전히 보시는 영적 태만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배는 도망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마하랄(Maharal)은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는 유배가 완전히 새로운 실존적 조건을 창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정체성을 뒤로하고, 영적 변화가 가능해지는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 그대로 머물면서 변화되지 않은 채로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배는 곧 갱신과 거듭남의 발상지가 됩니다.

람할(Ramchal)은 그의 저서 《메실라트 예샤림(Mesillat Yesharim, 곧은 자들의 길)》에서 이 원칙을 더욱 심화합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고는 대개 ‘영적인 잠’의 결과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깨어 있음(제히루트, zehirut)의 결여는 영혼을 점진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결국 부주의함으로 인한 범죄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수많은 사고는 야훼 앞에서 늘 깨어 있는 마음을 통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습니다.

조하르(Zohar)는 이 논의를 카발라(Kabbalah)의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조하르는 유배 자체를 비루르(birur, 정제)와 미투크 하디님(mituk ha-dinim, 심판의 달콤함/심판의 완화)의 도구로 가르칩니다. 영적 손상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격리될 때 불결함의 장악력은 약화되며,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 신성한 심판이 신성한 치유로 변화되는 성소가 됩니다.

또한 조하르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이후 모든 유배의 원형으로 바라봅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유배당했습니다. 심지어 셰키나(Shechinah, 하나님의 임재) 자신도 이스라엘과 함께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유배는 야훼의 최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임재는 유배된 순간에도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며, 모든 유배가 그 내면에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야훼와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작은 에덴’이 됩니다.

타냐(Tanya)는 이 모든 패턴을 내면화하여 설명합니다. 타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네페시 하베하미트(nefesh ha-behamit, 동물적 영혼)와 네페시 엘로키토(nefesh Elokit, 신성한 영혼)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신성한 영혼은 세상적인 욕망의 지배 아래 일종의 유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테슈바(Teshuvah,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 훨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영혼이 자신의 신성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죽음의 자리를 떠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성한 영혼도 유배지를 떠나 야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바알 켄 토브(Baal Shem Tov)는 “모든

하강은 오직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만 존재한다(예리다 레초레크 알리야, yeridah l'tzorekh aliyah)”고 가르쳤습니다.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낳을 때에는 야훼와 더욱 친밀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트 에메트(Sefat Emet)는 도피성이 모든 세대마다 영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토라(Torah) 자체가 방랑하는 모든 영혼이 도망쳐 올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토라의 모든 페이지, 모든 미츠바(계명), 진심 어린 모든 기도와 회개의 행동 하나하나는 야훼께서 예비하신 성읍을 향해 내딛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됩니다. 케두샤트 레비(Kedushat Levi) 역시 이와 비슷하게, 가장 참된 피난처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임재에 대한 깨어 있는 의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야훼와 함께 거하는 자는 이미 궁극의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Shalom.